

풍모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데 ‘법’은 어디 있을까?



36 무애도인의 기상서린 풍국사

“무자 화두에 들면 염라대왕도 못 잡아 가니 여러 신도님들도 자나 깨나, 오나가나, 오로지 무자 화두를 드시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마음 찾는 공부를 하면 일체 근심이 끊기는 것을, 어리석은 중생들은 어찌하여 이 법을 외면하고, 염불 한 마디 안 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어른을 공경하지 아니하며, 친구들을 속이다가 결국 스스로 지은 죄에 떨어져 끝없는 고통 속에서 헤어지지 못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러한 모든 행위를 하고 하게 하는 ‘나’란 무엇이고?”
 <춘성 스님의 법문>

2010년, 어느새 절기는 하지(夏至)를 건너갔습니다. 이제 하루 한 뼉씩 산그늘이 길어지겠습니다. 무더운 한낮의 망상 삼아 100년 전을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늦더위가 한창일 때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열강의 이해관계가 험뎠처럼 얽혀 있는 가운데 식민지로 전락한 이 땅에 신문물이 밀려들어들어왔습니다.

100년 전 여름 어느 날, 소낙비가 후련하게 쏟아지는 설악산 백담사에서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여름 햇살이 자글자글 산사를 달구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낙비 속으로 뛰어든 사미가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은 흠뻑 다 젖어 던지고 알몸으로 뛰어나와 절 마당에서 비를 맞으며 명실당실 춤을 추는 어린 사미. 누구도 그 해괴한 짓거리를 말리지 않았습다. ‘조선불교유신론’의 막바지 원고를 쓰느라 맘을 흘리던 만해도 어린 사미의 돌출행동을 그저 툴툴거리 보기만 했습니다. 기라성 같은 스승들이 보는 앞에서 느닷없는 알몸 춤을 벌인 사미는 육쟁이로 이름이 난 춘성(春成 1891~1977) 스님이었습니다.

무애도인으로 활달자재한 한 생을 살았던 춘성 스님의 행적과 일화는 선가(禪家)에 살아 있는 전설입니다. 더러 음담(淫談)으로 치부되어 그 속뜻이 망측스럽게 변질된 경우도 있지만, 춘성 스님의 행화는 근현대 한국불교의 숨길 수 없는 역사입니다.

시인 효림 스님이 주지로 있는 성남 봉국사에서 시인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약속시간보다 좀 일찍 가서 절을 둘러보다가 후원 뒤쪽의 부도밭에서 춘성 스님의 부도를 발견했습니다. 1977년 입적한 스님의 부도와 탑비는 1981년에 세워졌습니다. 부도밭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꽃향기가 가득합니다.

팔각원형의 전형을 따른 부도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데 탑비는 스님의 행화에 비해 다소 왜소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사리를 수습하거나 부도를 세우는 등의 일을 일체 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스님의 고준한 인품에 크기를 맞출 탑비란 도대체 얼마나 커야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부도는 선사의 풍모를 한 눈에 보여주고 탑비는 선사가 남긴 삶의 궤적을 촘촘히 담고 있습니다.



봉국사 부도밭의 춘성 스님 부도와 탑비.

춘성 스님의 탑비는 당대의 대강백 탄허 스님의 글씨로 장엄되었고 비문 역시 탄허 스님의 문자항을 드날리고 있습니다. 한 수행자의 생애를 일일이 기록하기에 비면(碑面)은 좁기가 이를 데 없습다. 그러나 문자란, 한 글자로 100년을 말할 수도 있고 100 글자라도 한 마디를 전할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문자 그 자체에 신령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통해 주고받는 사람의 마음에 우주법계가 들어 차 있는 까닭이겠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비문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읽어 봅니다.

스님의 속명은 창림이요, 속성은 이씨요, 본관은 평창이며, 법명은 춘성(春成)이요, 춘성(春性)은 그의 법호다. 부친의 이름은 인오요, 모친은 박 씨이다. 단기 4244년(1891) 신묘 3월 30일, 강원도 인제군 원통리에서 태어났다. 모친이 한 동자가 오색구름을 타고 내려와 품안으로 들어 온 꿈을 꾸고서 마침내 태기가 있었다 하니 선사가 이렇게 오게 된 것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이다.

비문은 이어서 9세에 선흥사에 가서 출가의 뜻을 세웠고, 13세에 백담사 한용운 스님 회하에 들어가 삭발 했으며, 20세에 유점사 동선 노스님에게 귀의하여 구족계를 받았으며, 경학을 전공하여 특히 화엄법사로 명성을 드날렸다고 적고 있습니다. 만공 스님 앞에서 깨달음을 인가받은 얘기는 비교적 길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40세에 이르러 덧없는 세상을 탄식하고 덕승산 만공 노스님의 회하에 들어가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을 참구 했는데, 만공 노스님이 하루는 ‘교외별전(敎外別傳) 한 구절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묻자 스님의 우레 같은 큰소리를 ‘억’하고 질렀지만 만공 스님은 그를 수긍하지 않았다. 그 후 장좌불와 수행으로 정진을 더 하여 50세에 이르러 양주 흥국사에서 하



탄허 스님이 비문을 짓고 직접 글씨를 쓴 춘성 스님의 탑비.

공 스님이 이것은 그만두고 어떠한 것이 두 번째 가는 꽃이냐고 물으니, 스님은 바로 큰 소리로 ‘억’하고 내지르자, 만공 스님은 미소를 짓고 방장으로 돌아 가셨다. 이로부터 종횡에 얽매임이 없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자유자재하였다. 어느 때인들 선의 경지가 아니며 어느 곳인들 법이 아니겠는가?

춘성 스님은 처음부터 선방을 다닌 것이 아니라 ‘화엄법사’란 칭호를 얻을 만치 경학에 밝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언어가 끊어진 자리에서 문자를 세우지 않고 곧바로 대광명의 자리로 들어가 소요(逍遙)했습니다. 어쩌면 사미 시절 백담사에서 옷을 흘랑 벗고 소낙비 맞으며 춤을 추던 그 돌출행동이 육신에 비장(秘藏)된 선의 기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며 육고를 치르느라 스승 만해를 지극하게 시봉하던 그 순박하고 충직한 심성이 인간의 절대순수를 바탕한 것임을 누가 부정할 수 있었습니까? 비문에 기록된 춘성 스님의 인종계가 경학에 밝고 선수행에 투철했던 춘성 스님의 가풍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87년의 일은 일곱 번 넘어졌다가 여덟 번 일어나는 것이로다. 황철수설이여, 붉게 타는 화로위에 한 점의 눈일레라.

춘성 스님의 일화는 풍성해도 그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듯합니다. 만해와 춘성이 대를 이어 출가한 백담사. 오늘날 만해의 정신 선양의 1번지인 만해마을의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김광식 박사가 2009년 5월 <춘성>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일대기와 다양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봉국사를 다녀 온 다음날 <춘성> 한 권을 구매 읽으니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거기 이런 내용들이 깨알처럼 별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망월사에서 이불은 이불(離佛)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춘성은 수좌들이나 신도들에게 탐심을 내지 말고, 돈을 모으지 말며, 가진 것을 언제나 남에게 보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118쪽)

“스님께서는 죽은 뒤의 저쪽세상(來生)을 믿으시나요?” “필요 없다. 군더더기다.” “사후세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매우 크데요. 그럼 내생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필요 없이! 씨발놈아.” (165쪽)

“스님 양말이 짝짝입니다.” “별 놈 다 보겠구나. 따로따로 보지, 두 발을 함께 보고서 분별을 하느냐?” 춘성이 신은 짝짝이 양말은 남이 신고서 버린 현 양말이었다. (319쪽)

망월사에 갔더니만, 춘성 스님이 마당에서 직접 빨래를 하고 있더라. 그런데 등산객들이 스님 뒤에 가서 스님 공중이를 쳐다보고 있어. 이상해서 나도가 보았지, 스님이 아랫도리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 겹에는 앞옷을 것을 하나 걸치고서는 빨래를 하였어. 그래서 우리는 엉거주춤 있다가 빨래가 끝난 후에 내가 스님에게 물어 봤지. 왜 옷도 안 입고 빨래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스님이 말씀 하시기를, 좋은 옷이 있었는데 어찌 어떤 걸증이 왔길래 그 옷을 벗어 주었고 지금 빨고 있는 바지를 빨아서 입으려고 한다는 것이야. 춘성 스님은 그런 스님이야. (324~325쪽)

어느 날 춘성 스님은 통금 시간을 넘어 밤길을 가고 있었다. 방법 순찰을 하던 순경이 춘성에게 물었다. “누구요?” 춘성이 어둠 속에서 즉각 대답하였다. “중대장이다.” 그 소리를 들은 순경은 목소리는 노인인데, 중대장이라고 하니 의아해서 들고 있던 플래시로 춘성을 비추었다. “아니, 스님 아니시오?” “그래, 내가 중의 대장이지. 맞지?” 이 말을 들은 순경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396~397쪽)

무애도인의 활달 자재하던 풍모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데, 진실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법’은 어디에 있을까? 춘성 스님처럼 소낙비를 맞으며 춤이라도 명실당실 추고 싶어집니다.

임연태 (시인 · 본지논설위원)

남 위한 삶 몸소 실천, 육설로 법문 일화 많아 간략하게 생애 담은 탑비 탄허 스님의 글 글씨

안거를 할 때였다. 꿈에 만공 스님이 연꽃을 들어 보이는 것을 보고서 교외별전 한 구절을 톡 트이게 깨달았다. 계승을 지었다.

연화강 세계 속에 온 몸이 차가움고 대천사계가 나의 몸일레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별진구를 묻는다면 바로 비로신이라 답하리라.

만공 스님은 이 계승을 보고 짐작으로 응대할 뿐이었다. 어느 날 화단에서 꽃구경을 하였는데, 만공 스님이 갑자기 “어떤 것이 가장 으뜸가는 꽃이냐?” 라고 묻자, 스님은 바로 주먹을 벌근 들어 보였다. 만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법요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庚寅 仲夏 편집인 日江 합장

예경·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까지 목박,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2,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 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7,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식, 지장불공, 관음식, 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 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집, 송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일찍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 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어 불어느니라 정확하고 생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 그밖에 도서목록 -

- 영혼과 문명의 비밀(365쪽)
- 불교종합의식 집(393쪽)
- 한국 한양국 전통의식 집(225쪽) 등이 있다.

● 구입문의 일강 출판사 02)2233-5286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사찰화재보험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항·장작 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신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할 수도 없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포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유의사항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심사(실측) 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호 전화: 010-7344-1881